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1	09. 28	10. 05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새학기 기도회 - 9월29(월)~10월4일(토) 오전 8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4. 추수 감사절 - 10월 5일(주일)에 드립니다(추석-10월6일)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합계 (Euro)	
온라인헌금(9월)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b>Liebevoll 찬양팀</b>
*찬 양 Gemeindelied	-----	반주자
*송 영 Chor	-----	이상호 목사
*기 원 Altargebet	-----	다같이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7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종열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왕상 19 : 9 - 14(구p550) (Könige 19:9~14)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로렘나무 아래의 은혜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b>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b>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창조적인 사랑

독일의 종교개혁가 Martin Luther는 “두 종류의 의”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세 부류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관이나 정부 관계자에게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복수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복수까지는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 이들은 복음서에 따라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며 장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셋째는 사고 관념에서는 둘째 유형과 같으나 실천에서는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반환하기를 요구하거나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라 처벌이나 배상을 통해 흠치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변화된 삶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기희생적 사랑이 없다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여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뜰 때 / 이상호 목사(신학자)**

###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요즘 겪는 낙심(진로, 학업, 관계, 신앙)에서 나에게 떡과 물은 무엇일까요?
2. 내 삶에서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나눠보세요?